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1년 5월 2호

◆ 주요 동향

1. 광시(广西)자치구 해양국장 : '해양' 잠재력 발휘로 해양경제 확장
广西壮族自治区海洋局局长 蒋和生 : 释放“蓝色”潜力 拓展海洋经济
2. 차공당(致公党), 선전-산웨이 협력구에서 '선전해양경제특색시범구' 건설 건의
致公党深圳市委会 : 在深汕合作区建设“深圳海洋经济特色示范区”
3. 중국 국무원, 「생태상품 가치실현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 발표
中办、国办印发意见 建立健全生态产品价值实现机制
4. 가오즈궈(高之国)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국제거버넌스 제안
高之国 : 应对日本核污水排海挑战的合作新路径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 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5. 중국 '해양2호 D' 위성 성공적 발사, 첫 해양 동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我国成功发射海洋二号D卫星, 我国首个海洋动力监测网建成
<http://www.nmdis.org.cn/c/2021-05-19/74640.shtml>
6. 중국해양대학교 노르딕 센터(Nordic Center)에 가입
中国海洋大学加盟北欧中心
<https://mp.weixin.qq.com/s/DTUmOLrhrUFzO7Ghre0tww>
7. 자연자원부 제1해양연구소 '중국 해양탄소흡수 경제가치 계산표준' 제정 추진 중
自然资源部海洋一所正组织制订“中国海洋碳汇经济价值核算标准”行业标准
<https://mp.weixin.qq.com/s/VoXRg2gPXPMbxMdZT4Dviw>
8. 저장성 가장 큰 해상풍력발전단지 정식 운영 시작
浙江省最大海上风电场群开始正式并网运行
<https://mp.weixin.qq.com/s/tBiz7gCstw2X40tAOPHZwA>
9. 산둥 옌타이(烟台), 중국 북방 풍력발전 모항 건설
山东烟台向海“揽”风 建设中国北方风电母港
<https://mp.weixin.qq.com/s/RTZAHUEtV2CaVAyDaWixxA>
10. 중국 동해구(东海区)에서 '연안해역 탄소피크·탄소중립 조사평가' 시범사업 추진
海岸带海域将开展碳中和调查试点
<http://www.nmdis.org.cn/c/2021-05-18/74546.shtml>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광시(广西)자치구 해양국장: '해양' 잠재력 발휘로 해양경제 확장

■ 최근 장허생(蒋和生)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해양국장은 중국 경제일보(经济日报) 신문에 기고한 「'해양' 잠재력 발휘, 해양경제 확장」에서 광시자치구의 '향해경제(向海经济)' 발전방향을 제시했음

■ 광시 '향해경제'의 함의

- 광시자치구는 해양자원에 대한 보호·이용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향해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임항산업클러스터를 중점으로 구축할 계획임. 또한, 해양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양신산업을 강대하게 육성하여 광시 해양경제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계속 확장할 것임
- 광시자치구가 제시한 '향해경제'는 '육해통합, 강해연동, 협력·상생'을 특징으로 하여, 연해지역에서 더 깊고 더 먼 바다로 발전의 공간을 확장하며 해양경제의 발전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임. '향해경제'는 해양경제보다 범위가 더 넓고 '해양' 발전 잠재력을 발휘하여 발전 가능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음

■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확장

- '향해경제'는 해양관련 산업을 연결고리로 하여 현대화 항만 및 종합교통운송체계를 뒷받침하고, '육해통합, 강해연동, 협력·상생'을 특징으로 하며, 해양경제, 연해경제벨트, 해양 지향 경제를 포괄함
- '향해경제'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유도할 수 있고, 항만·산업·도시의 합동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육·해 자원, 산업, 공간의 연동을 강화할 수 있어 해양경제의 발전공간과 배후단지를 확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음

■ 대외개방의 새로운 공간 확대

- '향해경제'는 '해양'을 매개로 하여 발전하는 외부 지향적인 경제이며, 내외를 연결하고 육·해를 연결하는 쌍방향 개방의 특징을 지님. '향해경제'의 발전은 국내와 해외의 두 가지 시장 및 두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이로운 것임. 이를 통해 개방·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양자나 다자간의 해양무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쌍순환'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구도에 더 잘 융합하게 할 수 있음

■ 자원이용의 새로운 공간 확대

- '향해경제'는 육해통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육지, 해안선, 해역, 도서 등 해양자원의 집약적 이용 범위를 확장하고, 자원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켰음
- 이와 동시에 육해 공동 발전을 통해 연해관광업, 해양의약·바이오제품산업, 현대해양서비스업, 해수양식업 등 산업의 패턴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해양의 생태적 우위에서 산업발전 우위로 전환할 수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음

(经济日报, 2021. 5. 16.)

https://mp.weixin.qq.com/s/_nH-rgBxiCe22wV5_MRB6w

치공당(致公党), 선전-산웨이(汕尾)협력구에서 '선전해양경제특색시범구' 건설 건의

- 최근 개최된 2021년 선전시 양회에서 치공당(致公党) 선전위원회는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춘 「선전-산웨이 협력구에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전략적 구도배치 진행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선전-산웨이 협력구를 '선전해양경제특색시범구'로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선전-산웨이 협력구내에 해양대학교, 해양자원개발연구원, 심수·원해 종합보장·실험기지, 남방해양어업가공거래센터 및 남방해양관광센터를 건설함으로써 '1 구역, 1 학교, 1 연구원, 1 기지, 2 센터'의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건의했음
- 건의 1 : 선전-산웨이 협력구를 '선전해양경제특색시범구'로 업그레이드
 - 선전-산웨이 협력구를 '선전해양경제특색시범구'로 업그레이드시켜, 해양경제 정책의 혁신 시범사업을 중앙정부에게 비준을 받도록 힘을 기울이고, 해양과학연구의 역량을 육성하여 해양문화를 발전시키며 선전시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기여하도록 한다고 제시했음
 - 선전-산웨이 협력구는 국가 체제혁신의 시범 선행지역이기도 함. 「제안」에서는 “선전-산웨이 특별협력구 관리체제 모색 및 보급”을 제시했는데, 선전-산웨이 협력구는 해양관리, 해양자원 거래 등 해양정책의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및 시범적 실행을 통해 선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해양사무관리를 위한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함
- 건의 2 : 협력구 내 해양대학교 및 해양자원개발연구원 설립
 - 선전시는 현재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해양관련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 미비함. 「제안」에서 해양대학교 및 국가심해과학탐사센터의 설립을 제시했음. 선전-산웨이 협력구는 해양대학교 건설을 위해 선정 가능한 부지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과학조사선을 위해 모항을 건설할 수 있고, 임해실험실을 구축할 수 있음
 - 선전 해양대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선전의 자본 우위를 바탕으로 해양자원 개발 및 산업화의 발전방향에 따라 선전-산웨이 협력구에서의 해양자원개발연구원 설립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건의함
- 건의 3 : 협력구 내 심수·원해 종합보장 및 실험기지 설립
 - 선전-산웨이 협력구의 토지자원을 활용하여 선전의 국가심수과학탐사센터 설립을 위해 종합보장기지를 구축함
- 건의 4 : 협력구 내 남방해양어업가공거래센터 설립
 - 선전-산웨이 협력구 해역은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광동성 연해에서 높은 품질을 지닌 어장 중 하나임. 「제안」에서 선전-산웨이 협력구의 샤오모항(小漠港) 구역에서 남방해양어업가공거래센터의 수립을 건의함

- 이를 통해 수산품의 가공과 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해양생물의 유전자적 육종, 해양바이오의약 등 해양바이오기술의 R&D 및 제품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건의 5 : 협력구 내 남방해양관광센터 설립

- 선전-산웨이 협력구는 해안선 자원이 아름답고 13km 백사장 및 여러 천연적으로 형성된 섬을 가지고 있는데, 「제안」에서는 이 섬들을 바탕으로 대형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해양교육의 실천기지를 개발한다고 제시했음.
- 또한,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레저관광구를 건설하고 연해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해양문화교육을 해양레저와 결합시키는 관광문화교육산업을 조성하도록 함

(深圳新闻网, 2021. 5. 13.)

https://wxd.sznews.com/BaiDuBaiJia/20210513/content_518517.html

중국 국무원, 「생태상품 가치실현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 발표

■ 최근 중국 중앙판공청(中央办公厅) 및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생태상품 가치실현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음

- 이 의견에서는 생태상품 가치실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태상품 가치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였고, 향후 생태환경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전제로 다양화 모델과 방법을 취해 생태상품 가치의 실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의견」 생태상품 가치실현 메커니즘을 위해 ①생태상품 조사·모니터링 메커니즘 ②생태상품 가치평가 메커니즘 ③생태상품 경영·개발 메커니즘 ④생태상품 보호 보상 메커니즘 ⑤생태상품 가치실현 보장 메커니즘 ⑥생태상품 가치실현 추진 메커니즘의 6개 세부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음
- 생태상품의 가치실현 메커니즘 구축의 핵심은 바로 제도적 측면에서 생태가치의 경제적 가치 전환에 있는 제한성을 극복함으로 생태환경 보호자가 수익자가 되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파괴자가 배상해야 하는 이익지향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임. 이를 통해 녹색적인 발전패턴과 생산·생활방식을 유도하고 생태환경 보호 및 경제발전의 공동 추진을 실현하도록 함

■ 생태상품 가치실현 과정

- 생태상품의 가치실현 과정은 바로 생태제품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를 경제적 효익, 사회적 효익 및 생태적 효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임
- 「의견」에서는 2025년까지 생태상품 가치실현 제도의 프레임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생태상품 가치 계산의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 생태보호 보상 및 생태환경 손해배상 정책제도를 더욱 보완하며 생태상품 가치실현에 관한 정 부평가 메커니즘을 초보적으로 형성함. 이를 통해 생태상품이 '가치계산, 저장, 거래, 현금화'에 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환경 보호의 이익지향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생태적 우위를 경제적 우위로 전환하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 2035년까지 생태상품 가치실현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중국 특색을 지닌 생태운명 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전면적으로 형성하며, 녹색 생산·생활 방식을 광범위하게 보급해야 함
- 「의견」은 생태시스템의 다양한 기능 속성을 고려해 생태상품의 수량과 품질을 반영하고 각급 행정구역을 포괄한 생태상품 총 가치 통계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또한 생태상품 가치 계산의 기본 데이터를 국민경제 추계 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였음

■ 「의견」에서 네 가지 전략을 제시

- 첫째, 경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함. 생태환경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 전제로 좋은 생태환경에 담겨져 있는 수요를 공급으로 전환시키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육성하며, 생태가 경제발전을 지원해 주는 동력이 되어주도록 함
- 둘째,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함. 생태자원과 생태상품은 향촌지역과 생태

-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임. 생태상품 공급과 수요 간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촌민의 치부(致富)를 실현할 수 있고 도농지역의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할 수 있음
- 셋째, 생태환경 보호·복원의 새로운 방향을 유도함. 대중에게 '녹수청산'이 '금산은산'을 가져줄 수 있다는 이념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으로 생태환경을 보호·복원하게 함
 - 넷째,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공생관계를 구축함. 생태환경 보호와 경제발전을 서로 촉진할 수 있는 중국의 길을 열어주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및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방안을 제공하도록 함

(上海証券报, 2021. 4. 27/新华社, 4. 30.)

<https://m.gmw.cn/baijia/2021-04/27/1302257385.html>

http://www.gov.cn/xinwen/2021-04/30/content_5604057.htm

까오즈궈(高之國)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 제안

- 까오즈궈(高之國) 국제해양법재판소 전임 판사 겸 하이난대학교 법학원 특별 초빙 원장은 'GLOBAL TIMES' 기고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 경로(New Collaborative Path to Tackle Japan's Nuclear-Contaminated Wastewater Challenge)'을 통하여 일본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제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인 문제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바다로 배출하기로 한 결정은 주변 국가, 국제 사회, 국제기구 및 전 세계 300 개 이상의 환경 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대와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일련의 절차, 원칙 및 의무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문제임
 - 따라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국제 거버넌스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일본의 주변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임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경로도 고려
 - 한국,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들 모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반대 및 우려를 표출하였고, 특히 여러 국가와 국제 조직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함
 - 법적 수단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지만, 사법 절차 자체는 제한성이 있음. 이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이고, 그 결과는 지는 것과 이기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임. 이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영향과 피해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국제사업재판소는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 주는 마지막 방어선이지만, 정치적 경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외교 담판으로 세계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함
- 'Better Discharge Initiative(BDI)' 구축을 새로운 협력경로로 제안함
 - 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고,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제안할 수도 있음. 이를 지역적이나 국제적인 정기 원탁테이블 회의로 설정할 수 있음. 이 메커니즘은 처음에 반공식적 성격(1.5 트랙 대화)으로 진행 가능하고 적절한 시기에 완전 공식적 성격(1.0트랙 외교)으로 변경 가능함
 - BDI 메커니즘은 초기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동북아 국가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점차적으로 동남아 국가와 태평양 국가로 확대할 수 있고 다른 국가와 국제조직이 옵서버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음
 - BDI 메커니즘의 주요 의제는 원전 오염수 배출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할 수 있음. 검토 가능할 사항은 피해 통지, 비상·예방 방안 초안 작성,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배출 데이터 교환, 환경영향 평가, 과학 표준 제정 및 국제협력 촉진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BDI 메커니즘의 성과는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보고서 등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음. 또한, 일치된 합의의 바탕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함. 이와 동시에 BDI 아래 법률팀, 과학팀, 환경생태팀 등 전문가팀을 구성하며, '공동 협상, 공공 건설, 공유, 공동이익 나눔'의 원칙에 따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 BDI 메커니즘을 통해 해양권익 수호, 세계 해양환경 보호, 해양운명공동체 및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에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를 지님

(중문번역 : 法眼看南海, 2021. 5. 17./영어원문 : GLOBAL TIMES, 2021. 4. 30.)

<https://mp.weixin.qq.com/s/GfPK1ezPpNlkjgFCxfJbsw>

<http://enapp.globaltimes.cn/#/article/1222534>